

## 덕숭총림 수덕사, 작년에 이어 '길 없는 길' 열어

### 선수행의 세계화 방안과 한국 선불교의 나아갈 길 모색 위한 국제선(禪)수행 대회

한국불교의 중흥조인 경허스님의 가르침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국제선수행대회가 4월 16부터 18까지 수덕사에서 열렸다.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지운스님)와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 사업회는 2박 3일간 수덕사에서 국제선(禪)수행 2차 대회 '길 없는 길'을 봉행하고, 지난해 경허스님 열반 100주기를 기념해 처음으로 열린 무차토론대법회의의 성공적인 회향을 이어갔다.

이번 대회는 한국불교의 꺼져가던 선맥을 되살린 근대 한국불교의 중흥조 경허선사의 수행가풍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선수행의 세계화 방안과 한국 선불교의 나아갈 바를 밝혀보고자 마련한 것이다. 대회는 경허선사의 제자 만공스님의 탄신다례부터 시작됐다. 만공스님 탄신 142주년을 맞아 진영이 모셔져 있는 금선대와 만공탑 그리고 능인선원에서 다례를 봉행한 데 이어 만공장학회(회장 용산스님)에서 동국대와 중앙승가대, 수덕사승가대학에 재학 중인 학인 40여 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덕숭총림 방장 설정스님은 법어에서 "경허선사는 무애자재한 삶을 산 대단한



〈입재식에서 덕숭총림 방장 설정스님이 법문을 하고 있다.〉

선지식으로 조선시대 억불승유 정책으로 꺼져가던 전등을 되살려 놓았다"며 "선풍을 진작시킨 선사의 진면목을 바로 알고 열심히 정진해야 한다."고 대회 입재식에서 말했다.

이에 앞서 행사를 개최한 수덕사 주지 지운스님은 "무차대회는 공간을 초월하여 경허 대선사와 만나는 법회와 선열의 장으로 무비공에 한 걸음 다가서는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대회가 면면히 이어져 수덕사

가 고통과 질곡에서 헤매는 사바의 중생들에게 평안과 행복이 가득한 등등상속의 도량이 되고 제2·제3의 경허·만공선사가 나오는 인연처가 되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국제선수행대회 첫날인 16일 저녁에는 경허선사를 선양하는 음악회가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국악인 김성녀 씨의 사회로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이 총감독을 맡았으며, 중앙국악관현악단이 연주했다. 소리꾼 장사의 씨와 김영임, 김덕수

사물놀이패, 도신스님, 국악신동 송소희 양을 비롯해 박애리와 팝핀현준, 아웃사이더, 관무용단, 채향순 무용단 등이 출연해 봄의 정취를 마음껏 즐길 수 있게 선사했다.

특히 이날 음악회에서는 박범훈 씨가 작곡한 경허·만공선사를 추모하는 노래를 도신스님과 김성녀 씨가 불러 대중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경허선사의 수행 발자취를 따라 걷는 시간도 가졌다. 17일 외국인 스님과 재가자 150여 명을 비롯해 400여 명이 참가한 순례에는 가야산 가야사지를 출발해 백제의 미소 길을 거쳐 보원사까지 5km 구간을 걷고, 무상사 국제선원 조실 대봉스님의 법문을 들었다. 이어 간월암으로 이동해 헝가리 원광사 주지 청안스님의 법문이 있었으며 저녁에는 범어사 주지 수불스님이 법문을 했다.

마지막 날 참석자들은 정혜사 참배 및 덕숭산 산행을 하고, 덕숭총림 방장 설정스님의 회향 법문을 끝으로 국제 선 수행대회 '길 없는 길'을 회향했다.

사진제공: 불교신문 이시영기자

## 조계종 33대 집행부 10대 정책 중 '한국불교 세계화' 평가와 과제



한국불교를 세계화하겠다는 원력은 종단 차원의 오랜 숙원이자 과제였다. 특히 33대 집행부는 종단 안정을 바탕으로 이 같은 과업을 푼심 있게 추진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3대 집행부는 출범 당시부터 한국불교 세계화를 핵심과제로 명시하고, 총무원장 지승스님이 핵심과제를 직접 챙기면서 주목받았다. 취임 원년인 2010년 미국을 순방한 데 이어 이듬해에는 프랑스를 찾았다. 또 지진해일 피해를 당한 일본 현지를 직접 방문해 희생자 천도재를 열면서 자비종단의 면모를 보였다. 총무원장 스님의 해외순방은 한국전통문화를 이식하는 효과도 거뒀다. 순방 기간 뉴욕과 프랑스에서 소개된 한국사찰음식과 템플스테이는 현지인과

언론의 큰 반향을 일으키며,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는 계기가 됐다.

진제 종정예하의 행보 또한 빼놓을 수 없다. 간화선 선양과 세계화를 위해 2011년 미국 뉴욕 리버사이드교회에서 평화대법회를 봉행하고, 다음 해에도 역시 미국에서 UN 세계종교지도자모임에 초청돼 간화선을 소개했다. 지난해 여수에서 개최한 '세계불교도대회 한국대회' 또한 한국불교의 세계적인 위상을 자랑한 행사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한국불교 세계화의 첨병은 문화가 맡고 있다. 사찰음식과 템플스테이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국제행사에 적극 참석하면서 세계화의 분위기를 이어갔다. 사찰음식은 2010년 뉴욕서 첫 행사를 연 이래, 매년 나라 밖에서 전통음식문화의 진수를 선보이고 있다. 템플스테이는

세계 4대 관광박람회 중 하나인 독일박람회가 선정하는 우수홍보관 시상식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이처럼 눈에 띄는 활동과 함께 33대 집행부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내실화에도 전력을 쏟고 있다. 비구니 영어전문 교육기관인 국제불교학교를 개설해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한 것도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으로 꼽힌다.

총무원 사회부 국제팀이 주도하고 있는 외국인 국제포교네트워크 강화 사업은 조계종 국제사이트(www.koreanbuddhism.net) 접속자 비율을 전년 대비 최대 10배 이상 폭증시키는 원동력이 됐다. 국제팀 관계자는 "100명이 넘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 관련 커뮤니티를 확보했다"며 "내실화를 통해 더 큰 변화와 성과로 이끄는 도약대를 마련하는데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미국동부에 해외특별교구를 처음으로 설치하고, 한국전통사상총서 영역본(英譯本) 13권을 완간하는 등 한국불교와 사상을 세계에 널리 홍보하는 기초를 닦았다.

올해 집행부는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아프리카에 학교를 건립할 계획이다. 아프리카 학교 건립은 먼 대륙에까지 불교의 씨앗을 심고 포교의 전진기지를 확보하겠다는 목적이 있다.

지난 2011년 내한한 프랜시스 X. 클루니 미국 하버드대 세계종교연구소장은 한국불교 세계화의 선결 조건으로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용어를 사용해 선불교와 참선의 철학과 정신을 설명해야 한다"며 "스승의 역할만 고수하지 않고 질의응답을 하면서 함께 배우는 학습자 역할이 요구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현 집행부뿐 아니라 종단이 지속해서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숙제다.

글: 불교신문 김하영 기자



# 포교원, 전법단 3주년 기념법회 및 국제전법단 출범

조계종 포교원은 4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조계종 전법단 출범 3주년 기념법회 및 전법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전법단 설립 3주년 기념 및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새롭게 출범한 국제전법단과 어린이청소년전법단의 활발한 포교활동을 기원하는 법회를 가진 것이다. 이 자리에는 포교원장 지원, 전법단장 계성, 교육부장 법인, 동련 이사장 심산스님과 임희웅 포교사단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포교원장 지원스님은 법어를 통해 "전법단은 '법을 전하기 위해 길을 떠나라'는 부처님 말씀을 받들어 분야별·지역별로 지난 3년 동안 전법에 매진해왔다"며 "더욱 굳건하게 전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서 "오늘 출범한 어린이청소년전법단은 불교미래를 여여가는 희망의 등불이고, 국제전법단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행하는 보살도"라며 "부

처님께서 부여하신 전법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오늘 임명되신 스님들께서는 각 분야에서 온 힘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제전법단장에 임명된 수암스님은 출범사를 통해 "각 지역에서 무소의 뿔처럼 당당히 걸어가는 스님들이 포교원의 원력으로 한자리에 모였다"며 "국제전법단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스님과 불자들이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국제전법단은 단장에 수암스님, 부단장에 지관·선업스님, 사무처장에 도계·정범스님, 사무국장에 수안·보련스님이 임명되었고, 국제전법단원으로 자우스님 등이 활동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국제 포교활동 참여 및 각종 법회와 사업 주관, 국제 포교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교환, 국제 포교기구와 조화를 이뤄 상호 유기적인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이다. 또한, 국제전법단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국제 콘텐츠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일지 사뭇 기대된다.

글\_ 편집부



## 조계종 교육원, 인도 성지 순례 연수 교육 시행

조계종 교육원(교육원장 현승스님)은 '2013년 승려연수교육'을 4월 12일 ~ 22일까지 실시했다. '자비를 구현하고 사회와 역사에 부응하는 승가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지안스님과 함께하는 인도성지순례'에 조계종 스님 40명이 동참하였다. 부처님 8대 성지 순례연수교육에 참석한 스님들은 첫째 날 초전법륜지 사르나트(녹야원)에 도착하여 다메크탑을 둘러보고 섰다. 부처님이 자신을 떠난 5 비구를 찾아 처음 법을 설하셨던 곳을 알리는 다메크탑은 웅장했다.

지도법사 지안스님은 "초전법륜지인 사르나트는 부처님이 성도를 이룬 보드가야에 이어 인류 역사에 불교가 탄생한 성지"라며 "삼보가 최초로 탄생한 곳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특히 "사르나트는 삼전법륜을 굴린 곳"이라며 "부처님은 논리로 이해시키고 가슴에 감동을 주어 마음 깊은 곳까지 환희를 체험하게 하는 세 가지를 설법하셨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도순례에 참가한 스님들은 4월 14일 바라나시에서 보드가야로 이동해 부처님이 정각을 이룬 마하보디사원과 유미족 공양을 받은 수자타 탑 등을 순례했다. 이어 4월 21일까지 전정각산 유영굴과 JTS 수자타 아카데미, 법화경 설법지인 영축산, 죽림정사, 나란다대학, 유마경 설법지인 바이살리, 부처님 출가 삭발처인 케사리아 대불탑, 춘다의 마지막 공양지 파바마을, 열반지 쿠시나가르, 탄생지 룸비니, 기원정사



등을 차례로 참배했다. 특히, 5세기 무렵 설립된 세계 최고, 최대의 불교대학 나란다 대학은 한때 각국에서 유학 온 스님들을 포함해 8,500여 명의 학생과 1,500여 명의 스승이 거주하였으나, 지금은 여기저기 검게 그을린 붉은 벽돌만 남아 있었다. 12세기 이슬람의 침공으로 6개월 밤낮을 화마에 휩싸였던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있었다. 순례단은 이곳에서 정진했던 한국 구법승들을 위한 천도 다례재를 봉행했다. 아리아발마, 혜업스님, 현태스님, 현각스님, 혜문스님, 현유스님, 혜초스님 등 구법승들의 위패가 마련됐다. 이곳에 단이 차려지고 요령과 목탁소리가 흘러나왔고, 순례단의 '금강경' 독송이 울려 퍼졌다.

부처님오신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부처님 탄생에서 열반에 이르는 역사적인 현장을 직접 체험하였고, 시대를 관통하는 부처님의 지혜(智慧)를 배우고, 현대사회의 제반 문제와 갈등에 대한 불교적 해법(解法)을 찾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더불어 한국사찰과 JTS수자타학교를 방문하여 위문품 및 학용품품을 전달하였다. 글\_ 교육원 연수팀

## 조계종 사회부, 불기2557년 외국인스님 교육 성료

'2013년 외국인 스님 교육'이 지난 3월 30일 신정동 국제선센터에서 총무원 사회부 주최로 개최되었다. 본 교육은 종단에 초청되어 국내에 체류 중인 타 국가 외국인 스님을 대상으로 종단의 이해와 출입국 안내를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사회부장 법광스님은 이날 인사말에서 "지구촌 공동체라는 말이 실감 나는 세상이지만, 부처님 법을 따르는 불제자들조차도 아직 공동 의식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며, "세계화되고 일상화 되어 있는 관계 속에서 부처님이 주신 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어, 이를 실천하고 서로 인정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불교 정수를 면면히 계승해 온 한국불교 대표종단으로서 세계화의 흐름에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협력 교류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청해주시길" 당부하였다.

사회국장 성원스님의 '종단의 이해' 특강을 들은 후, 질의응답 시간에 다양한 질문이 있었다. "절에 가면 나이 많은 신도가 많은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포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외국인 스님들이 무료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은 어디에 있는가?" 등 한국의 포교 현실과 불교 현황을 더욱 깊게 이해하기 위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고, 이를 통해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한국'에 체류하기 위하여 알아야 할 출입국 관리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외국인 스님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시간이었다. 외국인 스님이 상호 현황을 공유하고 개별적인 민원도 해결하는 등 많은 호응이 있었다.

이외 한국불교 소개 프로그램으로 팔만대장경, 고려불화와 관련된 영상 시청을 통

한 한국전통불교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보냈으며, 최근 개봉한 지울스님의 '모래가 흐르는 강'을 함께 관람하는 것으로 교육 일정을 마무리했다.

올해는 강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한국어 강의 - 언어별 조 편성 - 조별 공유 - 질의응답 형식의 강의 방식을 도입, 강의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최초로 도입했으며, 좋은 반응과 결과를 얻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한국 내 체류하고 있는 스님의 현황을 점검함으로써 차후 출입국 관리에 대한 종단의 지침을 명확히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교육 시간이었다.

글\_ 사회부 국제팀



## 러시아 학생교류단, 부산 동림사 한국문화체험에 경탄

부산글로벌센터 초청으로 부산을 방문한 '2013 블라디보스톡 학생교류단' 일행 20명을 3월 29일 부산 동림사주지 성타스님로 초청,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40여 년간 포교의 수단으로 한국화와 선화 등 불교예술 활동을 하는 성타스님은 이번에 방문한 러시아 학생들에게 직접 불교미술을 지도했다. 참선시범과 다도문화체험의 시간도 가졌는데, 러시아

학생들은 처음에는 생소한 동양문화에 어색해하다가 점차 흥미를 느끼는 듯했다.

인술교사 엘레나 씨는 "한국에 와서 몇 차례나 사찰을 방문한 적은 있었지만, 건물을 구경하는 수준의 관광에 불과했다. 동림사 스님과 신도들의 배려로 이번에 체험한 한국불교문화는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추억거리가 될 것"이라며 기쁨과 경탄을 감추지 못했다. 참가한 러시아 학생들도 한국인의 정서가 녹아있는 불교는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 한국인들의 소중한 문화유산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이구동성으로 소감을 말했다.

스님은 앞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러시아인들을 위해 문화 행사를 지속해서 할 예정이며, 러시아 어린이들이 다니는 부산러시아스쿨과 자매결연을 하고, 틈틈이 출강하여 그림지도를 해 줄 계획임을 밝혔다.

글\_ 동림사 박현재 051-508-2917

# (사)지구촌공생회, 성철스님 문도회에서 미얀마 물탱크 건립기금 보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법어로 유명한 성철스님,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승 성철스님의 깨달음이 미얀마까지 전해지고 있다. 국제개발구호NGO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스님)는 성철스님 문도회가 마실 물이 부족한 미얀마 만달레이주 수피마을의 주민을 위해 생명의 물탱크를 선물했다고 4월 23일 밝혔다.

미얀마 만달레이주 수피마을의 주민 2,486명은 물탱크가 건립되기 전에는 1월부터 6월 중순에 이르는 약 5개월간의 건기 동안 3,000갤런 규모의 물탱크 하나에 의존했다. UNDP와 유니세프, JICA, BAI 등의 단체들이 많은 지역에 식수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미처 손길이 닿지 못한 곳이나 사업이 진행된 지 오래되어 기존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구촌공생회가 성철스님 문도회의 후원으로 이곳에 10번째 생명의 물탱크를 건립한 것이다.

이번에 시설을 지원받은 수피마을의 주민은 “생명의 물을 제공해준 지구촌공생회와 성철스님 문도회에 감사드린다. 기초를



단단히 다지고 체계적인 공사를 통해 시설을 건립한 NGO는 지구촌공생회가 처음이다. 생명의 물탱크는 매우 튼튼하고 규모도 커졌으며, 지속해서 물을 저장해 둘 수 있어 안심하고 이용하게 됐다”며 지구촌공생회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스님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8일까지 미얀마 지부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 현장을 살폈다. 미얀마 물탱크 건립 현장에서 “수피마을의 입구는 진흙밭이라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마을에 들어와서 보니 주민 여러분의 노력으로 별천지를 보는 듯하다”며 “생명의 우물이 넘쳐나 마을 주민 모두가 생기발랄하게 보여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번 물탱크 건립을 후원한 성철스님 문도회는 한국 불교의 큰 스승으로서 수행 정진의 선풍을 이끌어 오신 성철 스님의 유지를 받들 뿐만 아니라 자비 실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수피마을 물탱



크도 이러한 원력이 이루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지구촌공생회 사무처장 화평스님은 “불자 분들의 관심으로 2013년에도 총 8기의 물탱크를 미얀마에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구촌공생회 후원문의 02-3409-0303

## 더프라미스, 동티모르로 향하는 U&I, We Are Girls 프로젝트

국제개발구호단체 더프라미스는 홍주현 일러스트레이터 및 제주중앙여자중학교와 함께 U&I, We Are Girls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U&I, We Are Girls 프로젝트는 남녀 차별 때문에 고통받으며 기본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개발도상국의 여자아이들을 후원하는 것으로, 그 방법은 홍주현 일러스트레이터의 지도로 제주중앙여자중학교 학생들의 작품이 상품화되어 판매된다.

이번 프로젝트의 상품은 파우치 키트로 홍주현 작가와 여학생들이 파우치 속 일러스트를 제작한다. 구매자는 파우치를 사 직접 만들 수 있고, 판매되는 상품의 수익금은 더프라미스의 사업인 동티모르 수쿠하 무푹 여성플뿌리모임에 후원 된다.

제주중앙여자중학교는 제주시 내 지역 중 열악한 가정환경에 있는 소녀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이다. 참가 학생들은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 가정 등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으며, 프로젝트를 통해 숨겨진 재능을 발굴 및 발전시키고, 자신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개발도상국 아이들을 원조해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오는 10월 11일, 세계여자아이의 날을 맞이하여 이번 프로젝트의 상품과 학생들이 만든 공예품 등이 U&I, We Are Girls 바자를 통해 전시 및 판매될 예정이다. 바자의 수익금도 개발도상국 아이들에게 후원 된다.

상품성과 기부가 결합한 이번 재능 기부는 제주중앙여자중학교 아이들에게는 스스로 재능을 발전시킬 기회이고, 더프라미스는 개발도상국 후원으로 연결되는 좋은 기회이다. 상품은 오는 여름에 출시되며 더프라미스에서도 판매된다.

더프라미스 후원문의 070-7596-9988



## (사)월드머시코리아, 스리랑카 빈곤학생에 장학금 전달

(사)월드머시코리아는 4월 2일 스리랑카 니스가마지역의 마하보리사주지 왓치 사라스님에서 100여 명의 중·고등학생들에게 새 학기를 맞아 장학금 700만원을 전달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공부에 전념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이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반둘라고나 발다나 스리랑카 교육부장관, 기단자나 고나 발다나 재무대표, 마해스 알매다 지역국회의원, 산디고마라 해라드 니스가마 경찰서장 등 지역주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달식에는 스리랑카 고전 전통의식이 진행되어 한층 분위기를 고조시켜 축제의 한마당이 되었다.

반둘라고나 발다나 스리랑카 교육부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멀리 한국에서 달려와 장학금을 주신데 대해 더없는 감사를 드린다며 월드머시코리아의 고마움을 잊지 말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이사장 현진스님은 인사말에서 “꿈은 거북이처럼 쉼 없이 노력해야 이뤄진다고 비록 지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하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그리고 학생 한명 한명에게 자신의 이름이 적



힌 장학금 통장을 전달하고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돕겠다고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상임이사 종광스님도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기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다며 힘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월드머시코리아는 지난 3월 10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활동영역을 스리랑카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첫 사업으로 장학금을 후원하기로 했으며, 2000여 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월드머시코리아 후원문의 070-4411-9136

# 미동부해외특별교구 · 미주현대불교 공동 개최, 한국불교 미래 세미나

120년 된 일본불교 연구 발표, 현지인 제자 양성 중요 지적

(위에서부터) 성원스님, 통역 해민스님, 던컨 윌리엄스 교수, 송광섭 박사



“일본에서는 불교 신도 80%, 기독교 교인 1% 정도로 구성돼 있으나 미국에 이민 온 일본인들의 종교를 살펴보면 불교 25%, 기독교 35%, 무종교 35%로 확 바뀐다. 이러한 미국사회의 특성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없으면 미주에서 한국불교의 장래는 어둡다.”

미국에서 한국불교의 나아갈 길을 고민하는 세미나가 4월 30일 뉴욕 불광선원에서 열렸다. 대한불교조계종 미동부해외특별교구(교구장 휘광스님)와 불교 월간지 미주현대불교(발행인 김형근)가 주최한 이 세미나는 한국불교가 미국에 전해진 지 50년이 되는 2014년을 앞두고 마련됐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이 특별 후원했다.

세미나는 한국불교보다 훨씬 일찍 미국에서 포교를 활발히 펼친 일본불교 정토진종과 조동종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미주 한국불교의 발전 방안과 나아갈 방향 등을 제시하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미국에서 일본불교를 연구한 송광섭(미해군대학원)박사·던컨 윌리엄스(USC)교수와 하와이대 교수로 있는 성원스님이 발제자로 나서 주제 발표에 이어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서영민(라가디아커뮤니티대학) 교수는 한국과 일본의 이민 형태를 비교·분석해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원영(보리문화원장)·지광(원각사 주지)·원충(보리사 주지)스님 등과 불자가 참석했다. 뉴햄프셔대 교수이자 뉴욕 불광선원 부주지 해민스님이 통역을 맡아 어려운 불교용어를 쉽게 설명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얻었다.

◆ 미주 일본불교의 과거, 현재는? 이날 발표된 자료를 종합해보면 일본불교가 미국에 첫발을 내디딘 것은 1896년쯤으로 올해로 110년이 훌쩍 넘었다. 1964년 경보스

님의 의해 첫발을 내디딘 한국불교와 비하면 그 역사는 길다.

조동종 사찰 280개(캐나다 포함), 정토진종 사찰 61곳(신도 수 6만여 명)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불교의 대표적인 두 종파 사찰만 해도 미주지역에 340개가 넘는다. 현재 미주지역에 있는 한인사찰은 70여 개로 파악하고 있다. 역사나 규모를 보면 한국불교와 차이가 크게 난다.

그렇다면 일본불교가 미국에서 정착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뭘까? 미국사회의 실정에 맞게 ‘교회화(化)’ 과정을 겪었다. 일본에서는 일요일에 정기적으로 봉행하는 법회가 없다. 하지만 교회나 성당의 주일예배·미사처럼 일요일법회가 생겨났다. 또한, 다다미에 앉아 법회를 보지만 교회에서 사용하는 긴 의자를 법당에 놓았다. 실내양상이 만들어지고 찬불가가 등장하는 등 기독교를 적극 벤치마킹 했다. 이민자들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역할도 사찰이 했다.

초창기에는 사찰이 1세 위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2세들이 등장하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했다. 현재 미주 한인 불교계가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2세에게 불교 전수는 물론 일본문화와 일본말을 알리는 데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영어가 편한 2세는 물론 3세가 등장하면서 영어법회가 주가 되고 일본어법회는 뒤로 물러나게 됐다. 3세·4세로 가면서 타민족과 결혼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일본불교가 울타리를 뛰어넘었다.

2차 대전 후 히피문화, 명상에 대한 호기심 등으로 미국인들에게 선(禪·Zen)이 인기를 끌자 불교가 한 단계 발전했다. 교회화로 과감한 변화를 이룬 미주 일본불교가 미국 주류사회와 소통하고 포교에 적극 나섰다. 일본계 미국인과 백인을 대상으로 스님

발굴에 힘쓴 것도 큰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 조동종불교협회에 가입해 있는 100여 명의 스님 중 80%가 미국인일 정도다.

이에 따른 스님 발탁과 수계(受戒)가 미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경쟁력 있는 스님 배출 체계를 갖추게 됐다. 한때 부침도 있었다. 일본의 미국 진주만 공습으로 일본인을 비롯한 일본계 미국인들이 격리 수용되면서 일본불교도 당연히 고난이 뒤따랐다.

◆ 미주 한국불교의 발전 방향은? 이날 발제자들은 일본불교가 미국에서 나름대로 왕성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이유를 찾아 이를 한인 불교계에 적용하는 길을 제시했다. 우선 한인 불교계의 현재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영어로 불교의 법을 자유자재로 전할 수 있는 스님이 있어야 하고, 현지인을 제자로 길러 내는 것 또한 중요한 ‘성공’ 요소로 손꼽았다. 이를 위해서는 승려 수계와 법맥 전수의 자율권 등도 지적됐다.

이외 활발한 저서 활동을 통해 미국 지식인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고, 다양한 커뮤니티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발맞춰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던컨 윌리엄스 교수는 “한국이나 일본불교의 전통만을 고집하거나 미국에 너무 현지화된 불교가 아닌 중도(中道)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어·일본어 법회와 영어 법회를 하는 그룹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다리역할을 하는 리더가 있어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형근 발행인은 “이 땅에 한국불교 전법을 위해 애쓴 선배들의 뜻을 잇고 미주 한국불교계가 안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는 세미나가 됐다”고 평가했다.

출처\_ 뉴욕중앙일보

사진제공\_ 뉴욕불광선원 총무 문종스님

## 보스턴 문수사, NE한인회 회장단 사찰 방문

뉴잉글랜드 한인회 한선우 회장은 한문수 수석 부회장 등과 함께 3월 24일 웨이크필드에 있는 문수사(회주 도범스님, 주지 혜각스님)를 방문하여 한인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회원 1,000명 시대’에 대해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신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회주 도범 스님은 한인회 회장단들에게 “벽 없이 서로가 어울려 사는 곳이 보스턴”이라며 “한인회가 한인 사회의 중심에 서서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는 등 마음의 정을 중요시하는 한국인들의 전통 미덕을 잘 살리는 한인 사회로 만들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에 한선우 회장은 “문수사 신도들이 한인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준다면 전통 미덕을 바탕으로 한인 사회를 보다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인의 공통적인 관심사로서, 종교를 초월하여 한마음으로 함께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 주 미국 독립기념일의 행사에 문수사가 여러 해 동안 뉴욕 국악팀을

초청하여 퍼레이드에 참석함으로써, 한국 전통예술을 홍보하고 있다. 그 외 태권도 단원 초청 시범 등 문수사가 지역사회 행사에 한국과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범 큰스님은 굽주리는 북한동포 돕기에 뜻을 같이한 신도의 후원으로 한동안 금강 국수공장에 밀가루를 보급했던 일과 미 동부지역 불교인들의 후원을 모아 뉴올리언스 태풍 피해 주민들을 도왔던 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장수인 부회장은 작년 MIT에서 있었던 아프리카 난민돕기 음악회를 소개하며 오는 27일 브루클라인 소재 보스턴 한인교회에서 있을 ‘탈북자 돕기 자선음악회’에 문수사에서 많이 참석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에서는 혜각스님을 비롯하여 많은 신도가 한인회원으로 가입하였고, 문수사는 한인회 발전을 위해 200달러를 기증했다.

기사 제공\_ NE 한인회  
보스턴 문수사 www.munsusa.org



## 뉴욕 불광선원, 초청공연 성황리 마쳐

불광선원(주지 휘광스님)에서는 4월 25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신도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특별 초청공연을 했다. 한국에서 온 전통예술단원과 뉴욕 사물놀이팀이 어우러져 신명 나는 공연을 하였고, 교민들에게 큰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이번 특별초청 공연은 특히 뉴욕취타대 단장 이춘승 거사님의 역할이 컸고, 출연진 중에 승무를 춘 이철진님의 귀한 공연을 직

접 볼 수 있어서 더욱 좋았다.

남도민요(새타령, 성주풀이, 진도 아리랑), 사물놀이, 풍류 합주, 판소리 등 한 시간에 걸친 수준 높은 공연에 참석한 불자들은 부처님오신날의 환희와 감동을 아낌없는 박수로서 대신하였다. 한국의 정취를 물씬 가슴에 담아 날마다 좋은 날 되길 바라면서 이 행사를 기획했다.

글\_ 뉴욕 불광선원 총무 문종스님

# 뉴욕 원각사, 스리랑카 불교계 방문 화제

## 정우스님 특별법회에 UN 대사도 찾아와



뉴욕 원각사(주지 지광스님)에 3월 24일 스리랑카의 불교계 인사들이 원각사 회주 정우스님이 봉행한 특별법회에 참석했다.

비하라 사찰의 부주지 비나타 스님을 비롯하여 팔리타 코호나 UN대표부 대사, 라리탄베이 메디컬센터의 위제 코타차지 회장 등 스리랑카의 불교계 인사들은 주지 지광스님을 비롯하여 150여 명의 한인 불자들과 함께 예불을 올리고 정우스님의 법문을 들었다.

스리랑카 관계자들이 원각사를 방문한 것은 대규모 불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침 이곳의 조경 설계를 맡은 이수희 SAN 대표가 정우스님의 특별법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알려 UN 대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원각사를 방문하게 됐다.

뉴저지 프린스턴에 있는 '비하라(Vihara)' 사찰은 뉴욕 뉴저지 스리랑카 불교의 중심지 역할을 맡은 곳이다. 명상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어 불교와 명상에 관심 있는 미국인들도 많이 찾고 있다. 지난 수년 간 준비한 대좌 불사는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가며 미주에서 가장 큰 불상이 건립될 것으로 알려졌다.

독실한 불자인 코호나 UN 대사는 "원각사의 정우스님과 한국인 불자들을 뵈게 되

어 영광스럽다"면서 미주 한인 불교계와 스리랑카 불교계가 끈끈한 유대를 갖기를 희망했다.

비하라 사찰의 불사추진위원장을 맡은 코타차지 회장도 "그간 말로만 들었던 한국 사찰을 방문하게 돼 기쁘다. 원각사 불자들도 기회가 되면 프린스턴의 우리 절을 방문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스리랑카 불교 인사들은 원각사가 미 동부에서 가장 오래된 한국 사찰로 무려 280 에이커(30만 평)의 광활한 부지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총 700만 달러 규모인 원각사의 대좌 불사는 좌대 포함, 10m에 달하는 청동 불상과 부처님 진신사리탑이 이미 조성됐고,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전통 한국식 법당과 요사채, 선방, 납골당이 들어설 예정이다.

정우스님은 "전통 한국식 법당은 내부 면적만 78평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이다. 대들보와 주춧돌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조달하고 나머지는 한국에서 제작 조립하게 될 것"이라며 "그동안 환경 평가 등 어려운 절차들을 다 거친 만큼 대좌 불사의 원망성취가 멀지 않았다"고 말해 불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뉴욕 원각사 +1-845-497-2229

## 북가주 청년불자 모임, 컵등 만들기 행사 동참

지난 4월 27일 토요일 북가주 불자 청년모임 TARA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아주 뜻깊은 행사를 기획했다. 그들은 사찰들을 방문해 연등 만드는 일을 돕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연등은 익숙하지 않은 솜씨 때문에 조금 힘들 듯하여 컵으로 등을 제작하는 컵등 만들기 행사를 돕기로 하였다. 타라 회원들의 친목도 도모하면서 소속 사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으로 이루어진 행사이다.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은 사찰을 방문할 수 없어서 이번 행사는 두 곳의 사찰을 방문해 진행하기로 했다. 첫 번째로 4월 27일 불광사를 방문해 컵등 제작을 하였다. 컵등은 초파일 행사 때 신도들에게 나눠 주는 좋은

선물이기 때문에 더욱더 뜻깊은 행사가 아닐까 하는 것이 TARA 운영진의 생각이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30~40개 정도를 만들어 불광사 초파일 행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오는 5월 4일에는 두 번째로 정원사를 방문하여 컵등 만들기 및 TARA 정기 법회를 할 예정이다.

정원사 컵등의 수익금은 가을학기 때 새롭게 단장할 정원사 한글학교의 보수 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면서 회원 간의 친목도 다지고, 기금도 마련하여 어린이 포교를 위해 쓰인다면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일 것이다.

글 정원사 총무 형전스님



## LA 송림정사(Songlim Jeongsa), 개원법회 봉행

고려사 전 주지인 범경스님의 그동안 소식이 궁금한 불자들이 많다. 지난주 웨스턴과 캠브리지의 송림정사에서 범경스님을 만났다. 3월 21일(월) 바로 이 사찰에서 개원법회를 가진 범경스님은 여전히 건강하고 여유로워 보였다.

"2001년 미국에 와 고려사 주지를 맡았을 때 사찰이 잉글리햄에 있었는데 그 지역에 학교가 들어서는 바람에 다음 해에 지금의 웨스턴 고려사로 이사했지요. 그 후 10년 주지로 살다가 지난 2011년 사찰을 떠나 동국대학교 LA캠퍼스 근처 조그만 아파트를 구해 그 대학에서 한의학 공부를 시작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1년 반 정도 더 공부해야 한의사로서 환자를 볼 수 있다는 범경스님은 다행히(?) 스님들에게는 학비를 절감해주고 또 인연 있는 불자들의 도움으로 그동안 지낼 수 있었다며 웃었다. "다들 왜 사찰을 떠나 뜬금없는 한의학 공부를 하느냐고 묻는다"는 범경스님은 "항상 마음속에서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뭔가 손발을 움직여 이웃을 위한 봉사를 하고 싶었다"며 안일함에서 안주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마 큰 동기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혀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우선 나 자신을

컨트롤하게 되고 한 사람의 종교인으로서 마음치료뿐 아니라 육체의 아픔도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이 큰 설렘과 희망을 주었다"며 이번에 개원한 사찰의 운영비 전도 자비실천 쪽에 힘을 싣고 싶다고 설명했다.

사찰에 얼마나 많은 불자가 오는가보다는 적은 인원이라도 일 년에 한 번 힘들게 사는 지역으로 해외의료봉사를 함께 떠날 수 있는 '그런 실천 위주의 봉사하는 사찰'을 이루고 싶다고 미래의 꿈을 피력했다.

부처가 무엇이나냐는 질문에 '활불은 바로 네 앞에 살아있는 증생들'이라 답한 가르침대로 '살아있는 부처'에 관심 갖는 삶을 살도록 노력할 것이라 말도 잊지 않았다. "도움을 청하는 이웃에게 도움을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라 성경 구절을 읽고 감명을 받은 적이 있다"는 범경스님은 "도움을 주는 사람도 부처요, 도움을 받는 사람도 부처"라며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겠느냐며 여유 있는 너털웃음을 다시금 지었다.

출처 LA중앙일보

LA 송림정사 +1-323-733-0502

www.songlim.org

## 태국불교 NGO SEM(Spirit in Education Movement) 사업관리자 초청 강연회 안내

불교적 가치를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의 사회변화를 위해 노력해온 태국불교 NGO SEM 사업관리자를 초청하여 활동사례와 성과를 들어보는 자리를 가진다. 한국의 불교단체와 국제개발협력단체를 비롯한 한국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SEM의 사례와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사회 변화의 방향과 비전을 모색한다.

또한, 경쟁과 대량 소비 및 생산이라는 서구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에서 야기된 사회문제, 갈등, 소외계층의 사회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 불교적 가치를 통한 교육훈련과 주민권한 강화 방식이 갖는 의미를 배우고, 한국 시민사회가 나아가 갈 대안적 운동방식을 모색하는 계기를 만든다.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 개발도상국 현지에서 서비스 전달과 물량 중심적 개발활동에 집중해온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NGO들로 하여금 내면적 성찰과 변화 등 정신적 가치를 바탕으로 시민사회권한을 강화하는 활동과 사업방식을 모색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많은 활동가가 동참하여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주 제 :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지속 가능한 개발
  - 강 사 : Somboon Chungprampree (SEM 사업관리자, 국제참여불교네트워크 INEB 사무국장)
  - 일 시 : 2013년 5월 27일 오후 7시
  - 장 소 : 서울글로벌센터 4층 402호(지하철 1호선 종각역 6번출구, 영풍문고 옆)
  - 참가대상 : 불교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국제개발협력 NGO 활동가 150명
  - 주 관 : 로터스월드, 더프라이스, ODA Watch
  - 협 력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코빌
  - 후 원 :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KBIN)
  - 문 의 : 로터스월드 사무국장 민정희
- Tel. 02-725-4277 / E-mail. mujin21@gmail.com

# 디자인 회사, 불교 명상으로 행복한 일자리 창조

**웨일즈, 영국** - 당신이 부처임을 믿으세요! 디자인 회사 직원들은 “불교 명상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날려 보내고 사무실을 완벽하게 평화로운 일자리로 만들기를 바란다”고 했다.

뉴포트 웹과 메타엔진 발전 연구소는 작년 6월 불교센터에서 만난 3명의 지인이 웨일즈에 설립한 회사이다.

“우리는 매일 일과 시작 전에 명상을 한다. 하루를 시작하는 훌륭한 방법이다. 부처님을 모신 방에서 초와 향을 켜고 은은한 법구 소리를 들으며 직원들은 하루 3번 명상을 한다. 법구에서 울려 퍼지는 차분한 진동이 고요하고 바른 마음을 되찾을 수 있게 한다. 호흡에 집중하면 곧 차분해져 걱정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 명상은 제 마음 상태를 크게 변화 시켰다. 갖가지 집착된 욕구와 욕망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었다”고 광고제작 감독 그레이엄 시멜은 말했다. “때때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명상실에서 몇 분간 명상을 한다. 다시 사무실로 돌아오면 전혀 다른 관점의 새로운 시각으로 일을 볼 수가 있다.”라고 윌리엄 엘월시 관리이사는 말한다.

利他行의 관용과 진실을 담은 불교의 오계를 실천하는 사무실 운영이 이들의 목표라고 한다. “우리는 명상을 위한 방식이 없어도 사무실 어디에서나 명상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그레이엄은 이 원리를 일상생활에 적용하면 모든 언행이 진절하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공동 작업 형태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특히 최근 신용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우리가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그레이엄은 전했다.

회사 설립자들은 1980년대 영국에서 선

물(Present)사업으로 수백만 파운드의 매출을 올린 캠브리지의 ‘불교기업’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웹 개발자들은 다양한 불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레이엄은 1960년대 미국의 ‘비트 작가(Beat Writer, 1950년대 미국에서 활동하던 文人들로 구애받지 않는 자아실현과 자기표현을 추구, 동양적 선(禪)에 심취)의 영향을 받았고, 윌리엄은 동양 무술에 관심을 두고 있다. 둘 다 카디프(Cardiff) 불교센터에 오기 전부터 불교 서적과 명상을 가까이했고, 운영이사 존 제임스도 여기서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 “함께 수행하면서 역동적인 사업 비전을 같이 공유하게 되었다. 6년간 사업을 하였지만 단지 생계를 위한 것이고, 너무나 치열한 삶에서 균형을 잡을 수 없고 오직 금전만을 목표하는 삶에 만족할 수가 없어 이전 작업 환경에 점점 더 환멸을 느꼈다.”고 윌리엄은 전한다.

이들은 웨일즈에서 점점 증가하는 불교 가르침에 대한 갈망이 웨일즈 佛者사회를 성장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레이엄은 “새로운 상품만을 추구하는 서구물질 문명 하에서도 삶을 풍요롭게 하는 다른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불교는 외향적 치장이 아닌 내면을 강조한다. 최신형 BMW가 전해주는 행복이 아닌 이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현 운영진은 훈련과 수습기간을 통하여 사업 확장을 계획 중이다. “우리는 불교 신자들과 함께 일하고 싶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배척하지 않는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불교 戒律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그레이엄은 말했다.

글\_ 리즈 데이 / Wales Online [2013. 4.22]



## 송산스님 첫 서양인 제자 우봉선사 열반

세계에 한국의 선(禪)을 전한 송산스님(1927~2004)의 첫 서양인 제자로, 송산스님이 세운 관음선종의 유럽 책임자인 우봉선사(본명 야콥 펠)가 4월 17일 열반했다.

우봉 선사는 프랑스 파리의 사자후선원에서 수행자들을 지도하다 잠시 방에 들어가 쉬던 중 입적해 유럽과 한국의 제자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

폴란드계 미국인인 고인은 1972년 미국에서 송산스님을 처음 만나 참선에 입문했으며 1978년 송산스님을 도와 폴란드에 관음선종을 설립했다. 이어 1984년엔 관음선종의 지도법사가 되어 미국과 유럽에서 수행지도를 했고, 1993년엔 송산스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인정한다’는 표시인 전법계를 받았다.

송산스님을 만나기 전 일본의 세계적 선승 스즈키 로시 스님, 티베트 님마파의 타르탕 툴쿠 스님 등과 수행했던 그는 “일본 선불교는 엄격하고 티베트불교는 복잡하다는 느낌인 데 반해 한국불교는 간단명료하고 직설적이며 수행방법 면에서 융화적·화합적”이라고 평한 바 있다.

1987년 결혼한 부인 자미(56·본명 그라지나 펠)와 사자후선원을 이끌던 그는 유럽 10



여 개국을 돌며 모든 수행 방식과 참선을 한국식으로 진행했다. 지난겨울 동안거 3개월간은 국내에 들어와 경북 봉화의 사찰에서 참선을 지도하고 돌아가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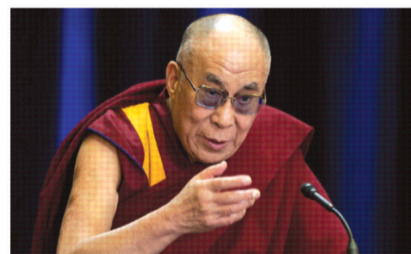
우봉 선사는 동안거 때 법문에서 “내가 스무 살 때는 절대 죽지 않을 것 같았지만, 점차 내 몸이 변하고 오랜 친구들이 사라지는 걸 보아왔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아주 젊다고 해도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라. 낭비할 시간이 없다. 삶과 죽음을 이해하고 싶다면 나중이 아니라 지금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비식은 4월 23일 파리 현지에서 거행됐으며, 계룡산 무상사에서 23일 초재에 이어 7일 간격으로 오전 10시 49재를 지낸다.

The Buddhist Channel [2013. 4. 29]

## 달라이 라마, “자비의 날”에 채식주의 강조

**뉴델리, 인도** - 달라이 라마는 지난 5월 3일 사보텐 호텔에서 세계 최초의 “자비의 날”에 불살생(Ahimsa, 不殺生)과 채식을 강론하면서 동물 보호를 토론의 주제로 선정하였다.



달라이 라마는 50년 전만 하여도 채식주의자가 아니었으나 암탉들이 농장에서 잔인하게 사육당하는 모습을 보고 채식주의자가 되었다고 미국동물보호단체(HSUS, the international branch of the Humane Society of United States), 국제동물보호단체(HSI - the Humane Society International), 프리티슈 난디 통신(PNC, Prithi Nandy Communications)의 동물보호단체가 주최한 “자비의 날” 행사에서 말했다. “세계 자비의 날은 일시적일 수 있다. 그러나 불살생(Ahimsa, 不殺生)과 유관하여 다시 생각해야 한다. 자비는 단지 훌륭한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적인 삶의 모습을 생각하며 행동해야 한다.”라고 PNC 창립자는 전했다.

달라이 라마는 모든 생명 존중과 채식주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대중 매체의 역할은 중요하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교육을 통한 정신적인 윤리를 일깨워 줘야 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중국에 대한 입장의 질문에 “우리는 새로운 현실 변화에 따른 새로운 체재를 기다리고 또 지켜볼 것이다.”라고 하였다.

참석한 대표 토론자는 “연 1인당 4kg~5kg의 육류를 소비하는 인도는 다른 나라보다 육류의 소비가 적은 편이다. 미국은 이보다 높은 100kg~110kg을 소비한다. 자비롭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영적이고 인간적이며 자신이 행동의 과(果)를 인정하고 채식주의가 되어야 한다”고 웨인 파셀 HUSU 대표는 말했다.

Ahimsa360.com [2013. 5. 5]

## 나날이 발전하는 도심 속 불교 사원

**리치먼드 하이츠, 미국** - 1년 전 3명의 불자로 시작하여 50명으로 성장한 불교 사원이 리치먼드 하이츠의 클레이턴 도심으로 이사했다.

청연달마 센터 法師 사울 히스키만은 지난 6년간 자비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지역의 모든 신문에서 예불이 가능한 장소의 정보를 얻어 한 명만 참석하여도 예불을 봉행했다. 우리는 요가 스튜디오 또는 다른 어떤 장소도 가리지 않았다. 작고 소박한 곳에서 시작했다.”고 말했다.

주로 웹사이트나 광고지를 활용하면서 홍보를 하였고 드디어 50여 명의 불자가 모이게 되었다”라고 히스키만은 말했다.

법사를 모셔 설법을 들을 때는 공간이 협소하여 서서 경청을 할 수밖에 없어 이

사를 결심했고, 4월 초 예불과 수업을 위하여 포씨트街에 2,500 스퀘어의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다.

히스키만은 현재 임대한 공간의 새 단장을 위하여 한구석만을 사용하고 있지만, 곧 장소 전체를 예불과 행사를 위한 사찰로 만들어서 여법한 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신성하고 청정한 예불이 진행될 것이다.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까지 진행되는 수행 정진도 계획하고 있다. 라마나 스님을 모시고 예불과 수업을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히스키만은 본인들 소유의 사찰 건물을 갖기를 소원하며 현재 장소를 18개월 동안만 사용하겠다고 계약했다.

글\_ 더그 민터 Clayton-Richmond Heights Patch [2013. 4. 23]

# 고대 불교 동굴 뉴욕에서 성황리 전시

**뉴욕, 미국** - 중국 연구소의 갤러리가 고대 동굴로 꾸며졌다. 다채로운 색채의 변상도, 불교 이야기로 꾸며진 프레스코 벽화, 실크로 제작된 깃발, 화려하게 채색된 실물 크기 점토 조각상 등으로 눈부신 불교 세계를 표현한 전시회에 십만여 명의 방문객이 찾았다. 이번의 전시회는 불교미술의 관문인 실크로드의 둔황 동굴을 본떠서 표현했다.

재연된 8세기 둔황 동굴은 고비 사막 동서쪽에 위치한 366년부터 1300년대까지 전성기를 이루었던 둔황 오아시스지역의 석회암 절벽에 동굴을 내어 내부를 불교 세계로 장엄한 것이다. 당나라(705-781) 때 지어진 735개의 막고 동굴(Mogao) 중의 하나로 불자들이 부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장엄되어 있다. 동굴의 천정은 꽃과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빈틈없이 눈부시게 채워져 있다. 한쪽 끝에는 화려한 문양의 法服을 입은 두 제자와 두 눈을 부릅뜨고 무기를 든 사천왕의 외호를 받은 부처님의 등신상이



모셔져 있다.

그동안 막고(Mogao) 동굴의 부분적인 작품들은 전시되곤 하였지만, 미국에서 동굴 조각의 모든 작품이 한곳에서 전시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아네트 줄리아노 루터대학 중국 미술학 교수는 전했다. “동굴은 건축,

조소, 벽화의 존재와 더불어 예불 의식이 행해졌던 抽象의 관념을 넘어선 장소였다고 1980년대 처음 동굴을 방문한 줄리아노 교수가 말했다.

많은 동굴은 보전이 잘 되어있으나 몇몇은 사막과 모래언덕으로 둘러싸여 수 세기 동안 방치되어 파손되기 쉬운 상태이다. 훼손 방지를 위하여 일일 방문 관광객 수를 제한하고, 관람 동굴을 순환해야 한다고 덧붙여 말하였다.

전시관에는 정교한 문양으로 장식된 6세기경의 사각 중앙 사리불탑 摸現品이 전시되어 있는데 존경을 표하는 종교적 방향인 시계방향을 따라 사리불탑 四面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다.

줄리아노 교수는 전시 서평에서 부처님 모습에 집중하고 중앙사리탑을 따라 걸으면 마음을 비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손으로 그려 재현한 벽장식과 불교의 여러 표현이 갤러리 전시 공간에 가득 담겨 있다. 최고의 백미는 일상의 모든 만물이 부처임을 나타내는 수천의 불상이 벽 전체를 채운 모습이다. 사슴 왕과 그의 여행담

을 담은 그림은 깨달음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진품 기도 깃발, 보존이 양호한 手記 불경, 원(元)시대의 서책, 점토 조각상, 다양한 국적의 외국여행자들이 실크로드를 여행하였음을 알려주는 페르시아 은화, 꽃문양의 타일, 어두운 동굴에서 사용되었던 기름 램프 등이 두 곳의 갤러리에서 전시되고 있다.

막고(Mogao) 동굴 조각들은 198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1900년 헝가리 출신 고고학자 아우렐 스타인 경에 의해 발견되기 전까지 서방에 알려지지 않았었다.

둔황은 실크로드의 북남 쪽에 위치하며 교역과 종교의 중심지였다. 큰 동굴로 이어지는 북도의 벽에 균열이 생기면서 유물들이 발견되었다. 학자들은 유물이 봉인된 이 유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유목민의 침략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벽을 세웠다고 가설하고 있다.

스타인은 중앙아시아를 탐험하면서 봉인된 동굴에 11세기 유물로 추정되는 중국어, 티베트어, 산스크리트어 등으로 기록된 수 만점의 고문서와 그림이 있다는 소문을 접하고, 경비원에게 동굴 유지비 마련을 위한 명목으로 상당량의 유물들을 판매하도록 설득하였다. 이후 몇 년에 걸쳐 동굴 유물의 약 80%는 외국 모험가들에 의해 해외로 반출되어 현재 각 박물관 및 전 세계 도서관에서 전시되고 있다.

전시회는 둔황 아카데미 주최로 오는 7월 21일까지 전시된다. 동굴 불교 서화와 조각상에 초점을 맞춘 울가를 두 번째 전시는 현대 예술가들에게 영적인 영감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울라 일리티츠키 AP통신 [2013. 4. 9]

## 인터넷과 함께하는 불교

**시드니, 호주** - 불교의 중심사상을 상호 연결된 인드라망으로 비유하고 있다. 베다(Vedic)신의 그물은 메루(Meru)산에 걸쳐 무한대로 펼쳐져 있고, 그물에는 투명 구슬들이 드리워져 각 투명 구슬들은 서로 서로 다른 구슬들을 투영하며 온 우주 삼라만상을 서로 투영한다고 한다.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불교 명예교수 루이스 랭커스터는 현실 세계도 이 비유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 그는 기원전 5세기 인도로부터 지속해서 전파된 불교의 정확한 전래 루트를 복잡한 문헌을 통하여 찾는데 수년간 고군분투하였다. 불교경전의 초기 언어인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로 쓰인 大藏經(藏: Sutras, Vinaya, Abidhamma)은 2세기 처음 한자로 번역된 이후 4세기 한국에서 팔만대장경으로 완성되었고, 일본으로 다시 전래하였다. 長久의 추적 연구로 랭커스터 교수는 학계와 연계하여 현대 지도에 불교를 標識化 하는 전자문화 지도를 개발하였다. 지도의 작은 점들은 불교 사원, 승가, 불교 연합회, 불교자원, 역사를 표시하며 간단히 마우스 클릭만으로 확인할 수 있다.

불교의 전래는 널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며 다른 종교 신앙과도 융화하며 토착화되었고, 인도를 벗어난 불교는 한 나라, 한 지역, 한 특정 사찰 및 특정인과도 연합하지 않았다.

랭커스터 교수의 전자지도가 불교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작업은 아니다. 13세기 한국의 팔만대장경이 1988년 서울 올림픽 기간 중 CD롬으로 제작되어 유리 사리함에 보관되어 스님들이 스타디움으로 모셔온 경험이 있다. CD롬이 신성한 사리가 된 것은 불교의 특징인 適應力을 보여준다.

종종 고승의 열반 후 화장터에서 발견

되는 사리는 불교의 典型을 보여주고 있으며, 스리랑카의 캔디(Kandy) 사원에 모셔진 부처님의 치아 진신사리는 신체 일부가 사리가 된 드문 사례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佛法과 불교의 가르침을 담은 CD가 신성한 사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질의 본질이 有限的이고 無常함을 佛法은 가르치고 있다. 물질 요소들은 融和과 解體를 반복하며 새로운 물질로 다시 생성된다. 모든 물질과 생명은 끝없는 生과 死를 윤회(Samsara)한다는 것을 佛者들은 믿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의 사용은 불과 20년~40년밖에 되지 않았다. 계속 변화하는 기술력에 부응하여 전자문화 지도 계획은 버클리 대학에서 더 낡은 기술로 소프트웨어가 갖추어진 대만으로 이전될 예정이다. 디지털 기술의 유한성은 이미 가르침으로 확인되었으나, 佛法을 보전하고자 하는 아이러니한 디지털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랭커스터 교수의 제자인 승려 주웨이 신은 류양(Lou Yang)의 옛 수도에서 거행된 1500년 전 불교축제를 재현하려고 한다. 5월 11일~12일 석가탄신일 기념일에 달링하버(Darling Harbour)에서 쌍방향 멀티미디어로 불상과 탕화 등을 전시할 예정이다.

중국과 히말라야 종교 지도는 아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ecai.org/chinareligion/index.html>

클레이철클 코안

Australian Broadcasting Corp [2013. 4. 30]

## 유럽에서 가장 큰 불교 사원 로마에 건립

**로마, 이탈리아** - 국제적으로 세간의 큰 이목을 받은 프란체스코 새 교황의 부활절 첫 축복 미사(Urbi et Orbi)가 성 피에트로 광장에서 진행되는 동안 도심의 동쪽 외곽에서 다른 종교의 특별한 행사가 있었다.

로마시장 지안니 알레마노(Gianni Alemanno), 중국 화교 및 티베트 스님 등 사부대중 수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3월 31일 유럽에서 가장 큰 불교사찰 개원식이 있었다. 탑 형태로 디자인된 후아이시(Hua Yi Si) 사찰은 이탈리아 중국커뮤니티의 재정적 지원으로 도시 외곽 포르프레 페스테(Tor tre teste)에 건립되었다. 알레마노 시장은 “로마에는 이미 유럽에서 가장 큰 모스크(mosque)가 있다.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바로 유럽에서 가장 큰 불교 사원이다.”라고 말하며, 평화와 조화로운 성장을 강조하였다.

로마에는 약 5,000~7,000명의 중국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들은 대부분 중국 남부 절강성 출신으로 알려졌다. 유럽 최초의 중국 불교 사원은 2005년 에스쿨리오(Esquilino)市 비토리오 광장 근처 페리쿠치오 8번가에 세워졌다.

로마의 모스크(mosque)는 아쿠아 아세토사(Acqua Acetosa) 지역에 있다. 23개 모슬렘 국가 및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으로 1995년 이탈리아 건축가 파올로 포르투게시(Paolo Portoghesi)가 건축한 이탈리아 모슬렘 센터이다. [Wantedinrome.com](http://Wantedinrome.com) [2013. 4. 1]

▶ 6~7면 번역은 현재 국제포교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수현님이 맡아주었습니다.

# 동남아시아국가들의 풍성한 새해맞이 축제



동남아시아 여러국가들은 전통적으로 4월13일~15일 전후로 새해가 시작된다. 날씨는 조금씩 다르지만 새해맞이 물축제의 비슷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미얀마 띠잔, 태국의 송끄란, 캄보디아 쫘츠남, 스리랑카 아우룻따, 방글라데시 보이사비 축제가 한국에서도 풍성하게 열렸다.

먼 타국에서도 전통을 이어가는 이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자리였다. 글\_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02-720-7095

(사진)  
 ① 방글라데시 보이사비 축제 ②③ 캄보디아 쫘츠남 축제  
 ④⑤ 태국 송끄란 축제 ⑥⑦ 미얀마 띠잔 축제



## 음식을 통한 마음나눔,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연(사찰) 음식강좌열려...

전주의 (사)착한벗들에서는 지난 4월 9일부터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식과 사찰(자연)음식을 알려주는 “마음나눔생활요리 자연(사찰)음식반” 강좌를 개강했다.

착한벗들의 이사장 회일스님(참좋은우리절주지)은 첫 강좌인 “전주비빔밥처럼 서로 다른 식재료들이 각자의 특징을 가지고 전혀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비빔밥이야말로 우리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편견 없이 어울림으로써 따뜻한 다문화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를 엿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첫 주제로 삼았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본 강좌에 참여한 수강생들은 강좌에서 익힌 실력으로 부처님오신날인 5월 17일과 6월 초 지역내 이웃을 초청하여 평가회를 겸한 음식나눔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매분기마다 이웃과 함께 나누는 자비행을

실천할 예정이다. 오는 10월에는 “전주비빔밥축제”에 참여하여 퓨전비빔밥을 선보일 예정으로 열심히 교육에 매진하고 있다.

강의에 참가한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미셀은 “마음나눔생활요리 과정은 그간의 교양프로그램과는 달리 한국 음식을 배워서 실질적으로 가사에 도움도 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며 소감을 밝혔다.

(사)착한벗들 063-236-0602



## 광주 2013년 제4회 이주민 축제 개최

지난 4월 28일, 아시아밝음공동체(센터장 도제스님)는 ‘2013 어울림한마당 체육대회’를 옥동경기장에서 개최하여 지역 내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약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개회사에서 도제스님은 “참가자들이 모두 국가와 종교를 떠나 다양한 체험을 하는 문화의 장으로 지구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함께 어울리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주민들이 한국문화와 광주시민의 따스한 정을 나누고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육대회에는 줄다리기, 계주, 배구, 크로켓 경기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명랑운동회가 진행되었다. 또

한 경기장 한쪽에서는 안과, 내과, 외과, 한방, 치과 무료진료로 이주민들의 건강 챙김이 함께 진행됐다. 2부 전통공연에 이어 이주민노래자랑에서 숨겨둔 끼와 장기를 겨루기도 했다.

이 날 행사에 참가한 스리랑카 출신 구르계씨는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서 오랜만에 친구들과 즐겁게 지낼 수 있었다. 행사를 준비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많은 이주민들이 함께 모여 전통 음식을 함께 나누고 푸짐한 경품과 선물로 빛고을의 넉넉한 인심과 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아시아밝음공동체 062-962-3395